

“청사 리모델링 비용 350억 남구청 책임”

감사원, 남구청 재심청구 각하 결정 남구청 개발원금 등 캠프에 물어줘야 할 판 관리비·이자 등 매달 추가 부담...파산 우려도

광주시 남구가 청사 이전 비용과 관련해 감사원의 결정에 따르지 않고 수개월째 소송을 준비하면서 자칫 수억원에 이르는 추가 비용까지 떠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9일 남구과 감사원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7월 남구가 요청한 청사 이전 비용 감사에 대한 재심청구를 받아 들어지 않고 각하를 결정했다.

각하 결정은 감사원이 지난 6월 내놓은 남구 청사 리모델링 비용인 350억여원의 상환 책임이 남구청에 있다는 감사 결과를 사실상 최종 확정판이다.

이에 따라 남구는 지난해 연말기준 개발원금 301억 2000여만원에 이자 48억 9000

여만원과 위탁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28억 8000만원 등 약 380억원에 캠프(한국자산관리공사)에 물어줘야 할 상황이다.

남구는 감사원의 각하 결정에도 지역 의원, 주민대표, 담당 공무원, 변호사 등이 포함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수개월째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 대구시가 캠프로부터 수백억원대의 대구시민회관 리모델링 공사비를 투자받는 조건으로 임대 운영권을 넘겨줬다가 적자가 발생하자, 결국 공사비를 모두 상환한 사례가 있다는 점에서 ‘추가 소송 무용론’ 등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관리비와 이자 등으로 매달 수억원의 추가 부담까지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7월 감사원의 각하 결정 통보에도 남구는 수개월째 대응을 지체하면서 이자 등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남구 주민들 사이에서는 수백억원의 혈세가 투입돼 결국 파는 주인이 떠난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 남구는 내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7억여원의 예산을 반영해 그동안 누적된 적자 28억 8000여만원을 변제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해 예산이 3991억원(지난해 기준)인 남구의 경우 예산 대부분이 인건비·복지·사업비 등에 투입된다는 점에서, 수백억원대의 리모델링 비용과 상가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십억원의 적자까지 떠안게 될 경우 현 청사를 매각하거나 파산 절차를 밟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병내 남구청장은 “대구시 사례 등을 참고해 철저히 준비하고 있으며, 추가 비용 등도 우려되는 만큼 최대한

빨리 마무리 하도록 하겠다”면서 “그대로 소송을 포기하면 피해는 모두 남구의 몫이기 때문에 끝까지 소송을 포기하지 않고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백운광장 인근에 위치한 남구청사는 공유재산 위탁개발을 통해 2013년 4월 개청했다.

남구는 현 청사인 옛 화니백화점 건물을 2011년 5월 105억원에 사들였고, 300억원에 달하는 리모델링 비용을 부담한 캠프는 향후 22년간 임대사업 수익으로 투자금을 환수하기로 했다. 청사는 지상 9층에 지하 6층 규모다. 캠프는 공공청사로 사용하는 공간을 제외하고 5개 층을 임대 운영했으나 투자비 회수는 고사하고 만생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따라 캠프는 남구청과의 1차 계약이 만기됨에 따라 계약 연장을 포기하는 대신 투자비와 적자분 등의 상환 및 보전을 요구해왔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광주 풍향 재개발조합장·조합원 구속

업체선정 뇌물수수 혐의

광주 풍향 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과 조합원이 정비업체 선정에 앞두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신준호)는 뇌물수수 혐의로 풍향 재개발조합장 A씨와 조합원 B씨를 구속했다. 이들은 재개발 과정에서 도시정비업체, 기타 업체 선정권을 주기로 약속하고 C씨에게 2016년부터 올해까지 거액을 받은 혐의로 받고 있다.

C씨 측은 앞서 A씨 등이 자녀 명의의 통장으로 5억2000만원을 받았다고 고소했으나, A씨 등은 건물을 담보로 빌린 돈이라고 주장했다.

풍향 구역 재개발사업은 2995가구·

8000억원 규모로,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서도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달 9일 열린 조합원 총회에서 포스코건설이 롯데건설을 제치고 시공사로 선정됐으며, 이후 일부 조합원을 중심으로 ‘친 포스코, 반 포스코’로 나눠 대립하고 있다.

조합원 중 일부는 포스코건설이 조합에 제출한 것과 다른 설계도로 홍보해 조합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으며 시공사 선정 무효를 주장하는 총회 개최를 요구하기도 했다. 또 일부 조합원은 업체와 결탁해 금품을 수수한 의혹 등이 있다며 조합장과 감사 등 9명의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21일 개최할 예정이다.

여기에 맞서 조합 측은 법원에 해임총회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군청 직원 성추행’ 안병호 전 함평군수 징역 1년 6개월

군청 직원 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병호(72) 전 함평군수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영남)는 19일 상습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안 전 군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교정원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다”며 “고령이고 최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

그럼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교정원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다”며 “고령이고 최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

“데이트 폭력 강압수사” 주장 20대 항소심도 일부 유지

광주고법 선고

경찰의 강압·편파 수사로 데이트폭력 피해자로 몰렸다고 주장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일부 유지 판결을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김태호)는 19일 유사강간, 상해, 감금, 재산손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

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신상정보 공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살펴보면 1심 판단은 정당하다. 양형에 대한 사정 변경도 없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

‘무한도전’ 출연 연예인 성추문 의혹 보도에 유재석 “난 아니야”



○개그맨 유재석(47)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가 제기한 MBC TV 예능 ‘무한도전’ 출연 연예인의 성추문 의혹에 대해 “나는 아니다. 당황스럽다”고 해명.

○유재석은 19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실시간 검색어에(내 이름이) 오르거나 한테 그 인물이 아니냐고 얘기하는 분이 많은데 순간 당황했다”면서 “물론 나는 아니지만, 그럴 언급하는 것 자체가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그렇기 때문에 자리가 난 김에 말씀 드린다. 늘 얘기하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가수 김건모의 성추문 의혹 등을 제기하기도 한 가세연은 지난 18일 ‘충격 단독. 또 다른 연예인의 성추문 고발’이라는 제목의 방송을 통해 한 연예인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의 인터뷰 녹취를 공개했으며, “유혹업소에서 일한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여성은 성추행한 연예인이 “당시 ‘무한도전’에 나온 분”이라고 주장하고, 방송 출연자인 김용호 전 기자와 강용석 변호사는 “바른 생활 스타일의 연예인”이라고 언급.

연합뉴스



전통음식 시식 19일 광주 북구 남도향도음식박물관에서 열린 2019 하반기 전통음식문화 및 공예학교 수료식에서 참가자들이 전시작품을 감상하고 전통음식을 시식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완도서 강도 행각 러시아 2인조 비행기 이륙 10분전 검거

완도에서 여관 주인을 대상으로 강도 행각을 벌인 뒤 해외로 도주하려던 러시아인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완도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8일 특수강도 혐의로 러시아인 A(33)씨와 B(29)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하루 전인 17

오후 7시 30분께 완도군 고금면 한 여관에서 주인 C(65)씨를 폭행해 현금 200만원과 휴대전화를 빼앗고 C씨를 인근 축사에 격박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몸이 묶여 움직일 수 없었던 C씨는 다음날 아침 축사를 찾은 축사주인의 도움

을 받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인근 CC-TV를 분석해 A씨 등의 도주 경로와 인상착의를 파악하고 출입관리사무소 협조를 받아 인적 사항을 파악했다.

이후 경찰은 부산지방경찰청과 공조해 이들이 18일 오후 1시 20분 김해공항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하는 항공기에 탑승한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항공기 이륙 10분 전 탑승 수속

을 마치고 활주로로 이동하고 있던 항공기에 대해 긴급 회항 조처를 내린 뒤 오후 2시께 김해에서 이들을 체포했다.

경찰조사결과 1년여 전부터 완도군 고금도에서 인력소개소와 여관을 운영했던 C씨의 소개로 여러 일을 해오던 A씨와 B씨는 평소 C씨의 여관에 고액의 현금이 보관돼 있다는 사실이 알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정은조 기자-전남주재총괄본부장 ejhung@

815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해방} 대출

3.1%~8.15% 금리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킵니다

각종 불법, 탈법, 고금리로 빌린 무서운 고리채, 그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신협이 해방시켜 드립니다. 순수 국내자본 신협이, 대한민국 서민을 평생 든든히 지킵니다

※ 상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상단 QR코드를 참고하세요

한국 신협은 117개국 2400조 자산 규모의 세계신협연맹의 아시아 회장국으로서 전 세계 빈곤 퇴치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알고계시나요?

- 신협의 7대 포용금융 프로젝트
- 고금리 대출을 3%~8.15%로 대환해 드리는 815 대출
- 3~4억 원에 2~4% 이상 저금리 대출
- 저금리 대출을 위한 저금리 대출 신청
- 저금리 대출을 위한 저금리 대출 신청
- 저금리 대출을 위한 저금리 대출 신청

평생 어부바 신협

신협의 7대 포용금융 프로젝트

1644-7990

평생 어부바 신협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해방} 대출

대한민국 민족자본 신협이 다시 한 번 시작합니다. 1960년대의 신협이 그러했듯, 오늘의 신협 역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켜가겠습니다. 한국 금융의 힘, 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신협의 고리사채 추방운동

민족자본 신협은 1960년대부터, 서민들의 생활을 옥죄어 온 고리사채의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신협 815 해방 대출은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거나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에게 지원하는 신협의 대표적인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대상자	신협 내부심사기준(신용등급 등)을 충족하는 고객 중 ①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의 신용대출을 3개월 이상 받고 있는 고객 또는 ②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	대출기간	최대 5년 (기연연정 포함)
대출한도	최대 1,000만원 이내	상환방식	만기일시상환 또는 매월 원금(일부) 균등분할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대출금리	연 3.1%~8.15% 이내 (고정금리)	필요서류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기타 필요 서류

문흥지점 266-4150

양산지점 573-4150

운암지점 528-4150

운암산지점 513-4150

매곡지점 572-4150

첨단지점 576-4150